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3호 [루계 제23225호] 주체99(2010)년 9월 30일 (목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대표자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선거된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대표자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촬영을 하는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은 참가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 기념궁전광장에 도착하시자 전지를 진동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

이 터져오르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일심단결!>, <결사옹위!>라는 우렁찬 구호의 함성이 맑고 푸른 9월의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격정의 환호를 리치는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혁명실력으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

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답례하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영남동지, 최영림동지, 리영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항일혁명로투사들인 리을설동지, 김철만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인 김영춘동지, 전병호동지, 김국태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강석주동지, 변영림동지, 리용무동지, 주상성동지, 홍석형동지, 김정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들인 김양건동지, 김영일동지, 박도춘동지, 최봉해동지, 장성택동지, 주규창동지, 리태남동지, 김락희동지, 태종수동지, 김평해동지, 우동숙동지, 김정각동지, 박정순동지, 김창섭동지, 문경덕동지가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통성 번영을 위하여 헌신분투하여온 조선로동당대표자회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련단심 당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온 조선로동당대표자회 참가자들이 앞으로도 혁명과 건설에서 선봉적역할을 다함으로써 우리 당의 전위투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백전백승의 당의 령도따라 성스러운 김일성동지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김 정 일 동 지 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당선이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된데 대하여서와 최고지도기관이 선거된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오랜 기간 김정일총비서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은 전체 조선인민을 령도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함으로써 조선사회주의 건설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최근년간 조선인민은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개선 등 분야에서 일련의 기적같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중조 두 나라는 두터운 전통적인 친선과 밀접한 지리적관계, 광범한 공동의 리익을 가지고있습니다. 중조친선협조관계를 공고발전시켜나가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국제정세가 아무리 변하여도 우리는 시종일관 전략적인 높이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중조관계를 틀어쥐고 수호하며 추진시켜나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중조관계를 부단히 새로운 단계로 올려세워 두 나라 인민들에게 더욱 큰 행복을 마련해주도록 하기 위하여 조선측과 함께 노력할것이며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다 큰 기여를 할것입니다. 총비서동지께서와 조선로동당이 조선인민을 령도하여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서 끊임없이 보다 큰 새로운 성과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중 국 공 산 당 중 앙 위 원 회 총 서 기 호 금 도 배 이 징 2010년 9월 28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일본조선문제간담회대표단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그에게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일본조선문제간담회대표단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를 일본 히로시마슈도대학 명예교수인 히시키 가즈요시단장이 29일 해당 나다 다카시가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여온 꽃바구니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되였다. 한편 이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그에게 김일성주석 탄생 100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28일과 29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보도는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김정일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고 하면서 김정일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것은 조선의 수백만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최대의 영광이고 행복이며 조국과 민족의 대경사라고 전하였다. 중국의 《신화매일전신》, 《해방군보》, 《해방일보》, 중앙TV방송, 로씨야의 이따르-따스통신, 쿠바의 프랜싸 라피나통신, 싱가포르TV방송, 프랑스의 AFP통신, 국제라디오방송, 영국의 BBC 방송, 미국의 AP통신, UPI통신, VOA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도쿄신보》, 《아사히신보》, 《니혼게이지아신보》, NHK방송, 체스코주제사상연구 및 구원소조와 백두산체스교조선친선협회 인터넷공공홈페이지 《조선-백두산》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지 도 기 관 성 원 들 ,
당 대 표 자 회 참 가 자 들 과 기 념 촬 영 을 하 시 였 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장병들의 경축대회 진행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력사적인 당대표자회 소식이 접한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가슴가슴은 끝없는 격정과 환희로 설레이고있다.

조국방선과 강성대국건설장소에서 백두산혁명군대의 위용을 펼쳐가고있는 인민군장병들은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조선로동당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어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장병들의 경축대회가 29일 전승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은 우리 당과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경사를 맞이한 크나큰 기쁨과 환희, 불세출의 신군영장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충대로 굳건히 옹위해갈 열화같은 충성안고 달려온 인민군장병들로 차고넘쳐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대회장엔 모셔져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고 쓴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고 쓴 구호판들과 대형그림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인민무력부장 김영춘동지와 인민무력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시작되었다.

대회에서는 김영춘동지의 연설이 이어 장병들이 리창한, 오금평, 윤선일, 언관 최기민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전당, 전군, 전민의 일치한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렸다.

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당의 최고수위로 변함없이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을 더욱 강화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정치적사변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기를 이어 수명부, 최고사령관복을 누려가는 최대의 행운을 지니게 되었으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앞길에는 위창찬한 미래가 펼쳐지게 되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의 최고대표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수령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비범한 령도자 품모를 지니시고 신군영명령도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당과 군대와 인민을 승리로 이끄시어 김일성민족사에 투기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

당건설업적을 만대에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명도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우리 당을 사상적순결계,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신군영명령의 세련된 정치적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시겠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국방공업발전의 큰 힘을 넣으시고 전인민적, 전국방방방위체계를 튼튼히 세워주시어 우리 조국을 그 어떤 강적도 당에 때려부실수 있는 막강한 자위적전력체력을 가진 군사강국으로, 남공북략의 요새로 전변시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크나큰 믿음, 사랑에 의하여 인민군대가 무적불사의 백두산혁명군대로 자라나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고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신군영명의 기수로써의 숭고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올 수 있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독자적인 신군영정치로 수시성상 당과 군대를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어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조국영광과 군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시는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회세의 정치원로로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로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가슴에 간직하고 위대한 령도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여세를 싸워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고 우리 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위하여 더욱 여세를 싸워나가기 바랍니다.》

연설자들은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혁명위업의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무궁무진하고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할때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정권체제와 군풍을 철저히 세우며 전군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

군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당창건 65돐에 즈음한 당 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최위원회를 끊임없이 심화시키고 최고사령관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군의 입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당정치사업들을 진공적으로 벌려 인민군장병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짙어지고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당이 제시한 혼연일체주의 방침을 철저히 구현하고 백두의 혼연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 군기확립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는것과 함께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적들의 침략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만일 침투들이 덤벼들면 무지비한 타격을 가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이라고 말하였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선군조선의 자랑인 군민단결을 강화하는데 앞장서며 신군영명의 주체군단개 사상정신과 투쟁기풍, 일본세와 문화생활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선도자적역할을 수행할때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우리 조국역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전군경에서 불기름을 모르는 혁명군대의 전투적기질을 남김없이 파시함으로써 강성대국건설장마다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게 하는데 이바지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있고 천만군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입심단결의 위력과 불패의 혁명투쟁정신이 있어 김일성동지의 앞길은 위창찬한다고 하면서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때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혁명적인 구호들을 힘차게 부르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최고수위 결사옹위하고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승리적전진을 백두산총대도 굳건히 담보해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표시하였다.

대회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 하리라》노래합창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장병들의 경축대회 진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장병들의 경축대회가 29일 전승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 결성서를 높이

는 심장마다에 접하고 뜻깊은 민족사적대경사를 경축하는 인민군장병들의 격정과 환희로 새차게 울려 퍼지고있었다.

로속하고 세련된 명도로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고 주체적군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은 신뢰의 정이 무도회장에 차넘치는 가운데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울려 퍼지며 경축의 춤바다가 펼쳐졌다.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충대로 계속완성할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불멸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고 천만군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어 세계적전선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선군정치이래 이 땅의 땅에서 어머니수령님의 념원,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현실이 펼쳐지고있음을 절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끝없이 부강번영하는 김일성조선, 금성체제의 내조국이 있다는 확신에 넘친 인민군장병들의 우렁찬 노래소리, 박수소리가 힘있게 울려 퍼져 무도회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륙해공군장병들은 당과 수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다해갈 철석의 맹세를 안고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혁명적 수뇌부 결사옹위 하리라》의 노래에 마음도 불종도 맞추며 박렬하게 춤을 추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구호들을 힘차게 부르면서 우리 당과 혁명무력의 불세출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입심 단결하여 백두산혁명군대의 무적막강한 위력을 더 높이 펼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에 나갈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보여 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지 노래부르자》 등의 노래에 따라 어깨를 짚고 춤을 벌이는 장병들은 우리 당의 독자적인 신군영정치이래 이 땅의 땅에서 어머니수령님의 념원,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현실이 펼쳐지고있음을 절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끝없이 부강번영하는 김일성조선, 금성체제의 내조국이 있다는 확신에 넘친 인민군장병들의 우렁찬 노래소리, 박수소리가 힘있게 울려 퍼져 무도회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륙해공군장병들은 당과 수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다해갈 철석의 맹세를 안고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혁명적 수뇌부 결사옹위 하리라》의 노래에 마음도 불종도 맞추며 박렬하게 춤을 추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구호들을 힘차게 부르면서 우리 당과 혁명무력의 불세출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입심 단결하여 백두산혁명군대의 무적막강한 위력을 더 높이 펼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에 나갈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보여 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쌀로써 당을 받들 한 마음으로

서 해 벌 방 농 촌 들 에서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감격과 기쁨에 넘쳐 한사합같이 펼쳐 나간 서해벌방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가을걷이전투에서 새로운 혁신창조의 불길들을 세차게 피어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촌에서 봄내, 여름내 애써 농사를 지어도 가을걷이와 날일할기를 제때에 하지 않으면 슬한 낱알을 잃어 버리게 됩니다.》

나라의 중요목창지대인 황해남도가 뜻깊은 올해 가을걷이전투의 앞장에 섰다.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쌀로써 충직하게 받들 불같은 열의에 넘쳐 모든 힘을 가을걷이에 집중하고있다.

이들의 높은 애국열의에 의하여 연백벌과 제령벌을 비롯한 도안의 농촌들에서 가을걷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있다. 해주시에서 장병이 가을걷이를 돕는 기간에 말갈이 끝났으므로 배천군을 비롯한 여러 군들에서도 장병이 가을걷이가 마감단계에서 진행

되고있다. 안악군과 안악군, 제령군에서도 벼가을걷이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도적인 벼가을걷이실적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6배로 오르는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당대표자회소식에 접하고 크나큰 환희에 휩싸인 황해북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은 가을걷이전투에서 열일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장풍군, 강남군, 사리시외의 농업근로자들이 벼가을걷이를 끝냈으며 장병이발원지에서 많은 황주군과 원산군, 곡산군들에서는 논리와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장병이가을걷이를 전격적으로 진행하고있다. 황주군과 사리시, 분산군, 은파군의 농업근로자들은 벼가을걷이 첫시작부터 기세충천내달림으로써 실적을 올렸다. 도안의 농촌들이 새로운 혁신으로 들끓고있는 속에 지난 28일 하루동안에만 하여도 도적으로 천수백정보의 면적에서 벼가을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포시의 농업근로자들은 알뜰찬성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할 맹세로 심장을 끓이며 가을걷이속도를 높이고있다. 강서구역, 와우도구역, 천리마구역, 온천군을 비롯한 시안의

여러 구역, 군들에서 장병이가을 걷이를 끝냈으며 시의 장병이 가을걷이는 마감단계에 들어갔다. 온천군과 와우도구역의 농업근로자들은 장병이가을걷이를 끝낸 기세를 높이지 않고 벼가을 걷이에 열광을 집중하고있다.

평안남도안의 농촌들이 세계를 뒤흔들고있다. 당대표자회소식에 크나큰 흥분속에 접한 문덕군, 평원군을 비롯한 열두살림면의 농업근로자들이 벼가을걷이를 집단적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중산군에서는 이미 장병이가을 걷이를 끝내고 벼가을걷이를 일정 계획대로 내밀고있다.

승리의 신비에 넘쳐 분발해나선 평안북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은 가을걷이를 힘차게 다그치고 있다. 정주시에서 벼가을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으며 곡산군, 선천군, 온천군, 박천군이 그뒤를 바짝 따르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로 높이 모신 영광은 영광과 기쁨에 넘쳐있는 서해벌방의 농업근로자들은 10월의 대추진전을 멋있게 틀어쥐기 위하여 가을걷이전투에서 남달리 새로운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분사기자 김 향 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공산주의로동당대표단을 위하여

【평양 9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공산주의로동당대표단을 위하여 29일 평양고려호텔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서는 한우 하르우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공산주의로동당대표단이 초대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와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김영일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두 당이 오래전부터 반제, 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길에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온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공산주의로동당이 혁명적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하고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공산주의로동당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주고있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두 당사자의 친선관계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한우 하르우위원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당대표자회에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하였다.

6.15공동선언의 발표가 조선인민의 통일위업을 추동함에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내놓으신 건설적인 통일제안에 깊이 공감했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에 대한 자기 당의 지지를 표시한다고 하면서 그는 두 당사자의 관계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을 표명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며, 한우 하르우위원장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평양 9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시미즈 스미오 공동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일조

중화인민공화국창건 61돐에 즈음하여 중화인민공화국창건 61돐에 즈음하여 중화인민공화국창건 61돐에 즈음하여

연회에서는 류홍재 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창건후 중국인민이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정일총비서동지의 두차례의 중국방문은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을 추동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대표회와 성파적으로 진행되고있는 김정일동지께서 또다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셨다고 하면서 조급도총서기동지가 축전을 통하여 축하의 뜻을 표시

한데 대하여 말하였다.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명도밑에 조선인민이 경제발전과 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나타내며,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을 추동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대표회와 성파적으로 진행되고있는 김정일동지께서 또다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셨다고 하면서 조급도총서기동지가 축전을 통하여 축하의 뜻을 표시

한데 대하여 말하였다.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명도밑에 조선인민이 경제발전과 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나타내며,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을 추동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대표회와 성파적으로 진행되고있는 김정일동지께서 또다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셨다고 하면서 조급도총서기동지가 축전을 통하여 축하의 뜻을 표시

한데 대하여 말하였다.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명도밑에 조선인민이 경제발전과 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나타내며,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을 추동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대표회와 성파적으로 진행되고있는 김정일동지께서 또다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셨다고 하면서 조급도총서기동지가 축전을 통하여 축하의 뜻을 표시

한데 대하여 말하였다.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명도밑에 조선인민이 경제발전과 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나타내며,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을 추동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대표회와 성파적으로 진행되고있는 김정일동지께서 또다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셨다고 하면서 조급도총서기동지가 축전을 통하여 축하의 뜻을 표시

한데 대하여 말하였다.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명도밑에 조선인민이 경제발전과 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나타내며,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을 추동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대표회와 성파적으로 진행되고있는 김정일동지께서 또다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셨다고 하면서 조급도총서기동지가 축전을 통하여 축하의 뜻을 표시

한데 대하여 말하였다.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명도밑에 조선인민이 경제발전과 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나타내며,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을 추동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대표회와 성파적으로 진행되고있는 김정일동지께서 또다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셨다고 하면서 조급도총서기동지가 축전을 통하여 축하의 뜻을 표시

한데 대하여 말하였다.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명도밑에 조선인민이 경제발전과 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나타내며,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을 추동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대표회와 성파적으로 진행되고있는 김정일동지께서 또다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셨다고 하면서 조급도총서기동지가 축전을 통하여 축하의 뜻을 표시

일조국교정상화협력대회 대표단 도착
【평양 9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시미즈 스미오 공동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일조국교정상화협력대회 대표단이 29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10월 중 지자기 현상
10월에 일기와 기타 지구 물리학적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들은 다음과 같다. 2일, 6일, 11일, 14일, 17일, 26일, 31일. 분사기자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

백승의 당기따라 산악같이 일떠선 불패의 전위대오

백승의 당기따라 불패의 전위대오가 산악같이 일떠섰다. 이 한문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위대한 당,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철석같은 신뢰로 가슴끓이는 천만국민의 심장속에 신념의 맹세 넘쳐나고 있다.

백승의 당기따라 불패의 전위대오가 산악같이 일떠섰다. 이 한문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위대한 당,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철석같은 신뢰로 가슴끓이는 천만국민의 심장속에 신념의 맹세 넘쳐나고 있다.

백승의 당기따라 불패의 전위대오가 산악같이 일떠섰다. 이 한문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위대한 당,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철석같은 신뢰로 가슴끓이는 천만국민의 심장속에 신념의 맹세 넘쳐나고 있다.

백승의 당기따라 불패의 전위대오가 산악같이 일떠섰다. 이 한문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위대한 당,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철석같은 신뢰로 가슴끓이는 천만국민의 심장속에 신념의 맹세 넘쳐나고 있다.

백승의 당기따라 불패의 전위대오가 산악같이 일떠섰다. 이 한문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위대한 당,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철석같은 신뢰로 가슴끓이는 천만국민의 심장속에 신념의 맹세 넘쳐나고 있다.

백승의 당기따라 불패의 전위대오가 산악같이 일떠섰다. 이 한문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위대한 당,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철석같은 신뢰로 가슴끓이는 천만국민의 심장속에 신념의 맹세 넘쳐나고 있다.

백승의 당기따라 불패의 전위대오가 산악같이 일떠섰다. 이 한문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위대한 당,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철석같은 신뢰로 가슴끓이는 천만국민의 심장속에 신념의 맹세 넘쳐나고 있다.

백승의 당기따라 불패의 전위대오가 산악같이 일떠섰다. 이 한문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위대한 당,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철석같은 신뢰로 가슴끓이는 천만국민의 심장속에 신념의 맹세 넘쳐나고 있다.

백승의 당기따라 불패의 전위대오가 산악같이 일떠섰다. 이 한문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위대한 당,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철석같은 신뢰로 가슴끓이는 천만국민의 심장속에 신념의 맹세 넘쳐나고 있다.

백승의 당기따라 불패의 전위대오가 산악같이 일떠섰다. 이 한문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위대한 당,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철석같은 신뢰로 가슴끓이는 천만국민의 심장속에 신념의 맹세 넘쳐나고 있다.

강철로 단을 받들 궤를 걷는 열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우리 인민과 군대는 우리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당의 뒤리에 더욱 굳게 뭉쳐 당의 령도를 경계선동의 복소리가 힘있게 울려나왔다. 공장, 기업소, 광산들의 전투현장, 막장들마다에 혁신의 소식을 전하는 속보들이 날고 당원군들이 근로자들과 함께 전투를 해나가는 모습이 펼쳐졌다.”

가는 곳마다가 그대로 화신식경제선동무대였고 불꽃튀는 기적과 혁신의 창조장이었던 그 모습들은 위대한 당기따라 산악같이 일떠선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위대한 당, 위대한 장군님을 끝까지 받들어모실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전진하는 대중의 앞장에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당이 키워낸 당원군들과 신군 혁명위업의 선봉투사들이 미더운 당원들이 시었다.

바로 이들이 있어 수령, 당, 대중의 임심단결은 백배해지고 우리 당의 위력은 날로 높이 떨쳐지는 것입니다.

본사기자 립 현 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우리 인민과 군대는 우리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당의 뒤리에 더욱 굳게 뭉쳐 당의 령도를 경계선동의 복소리가 힘있게 울려나왔다. 공장, 기업소, 광산들의 전투현장, 막장들마다에 혁신의 소식을 전하는 속보들이 날고 당원군들이 근로자들과 함께 전투를 해나가는 모습이 펼쳐졌다.”

가는 곳마다가 그대로 화신식경제선동무대였고 불꽃튀는 기적과 혁신의 창조장이었던 그 모습들은 위대한 당기따라 산악같이 일떠선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위대한 당, 위대한 장군님을 끝까지 받들어모실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전진하는 대중의 앞장에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당이 키워낸 당원군들과 신군 혁명위업의 선봉투사들이 미더운 당원들이 시었다.

바로 이들이 있어 수령, 당, 대중의 임심단결은 백배해지고 우리 당의 위력은 날로 높이 떨쳐지는 것입니다.

본사기자 립 현 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우리 인민과 군대는 우리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당의 뒤리에 더욱 굳게 뭉쳐 당의 령도를 경계선동의 복소리가 힘있게 울려나왔다. 공장, 기업소, 광산들의 전투현장, 막장들마다에 혁신의 소식을 전하는 속보들이 날고 당원군들이 근로자들과 함께 전투를 해나가는 모습이 펼쳐졌다.”

가는 곳마다가 그대로 화신식경제선동무대였고 불꽃튀는 기적과 혁신의 창조장이었던 그 모습들은 위대한 당기따라 산악같이 일떠선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위대한 당, 위대한 장군님을 끝까지 받들어모실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전진하는 대중의 앞장에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당이 키워낸 당원군들과 신군 혁명위업의 선봉투사들이 미더운 당원들이 시었다.

바로 이들이 있어 수령, 당, 대중의 임심단결은 백배해지고 우리 당의 위력은 날로 높이 떨쳐지는 것입니다.

본사기자 립 현 숙

인민의 한 마음

기쁨과 격정이 한데 어우러져 건설장은 그야말로 환희의 도가니였다. 하루가 다르게 완공으로 우뚝 우뚝 솟아올라오는 건설장에 새창이 일렁이는 걸작의 파도를 가슴에 안으며 걸음을 옮기던 우리는 한 잔디밭에서 멈추어서게 되었다.

아직도 공사가 한창인데 갖가지 꽃나무들이 규모있게 심어진 잔디밭에서 건설차차들이 정성껏 연석을 닦고있던 것이다.

《매일이면 또 휴먼지가 쌓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 한 처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아버지장군님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매일 연석을 닦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려 그들의 마음을 읽어보느라 단 천원건설현합기업소의 한 돌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아버지장군님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매일 연석을 닦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려 그들의 마음을 읽어보느라 단 천원건설현합기업소의 한 돌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아버지장군님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매일 연석을 닦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려 그들의 마음을 읽어보느라 단 천원건설현합기업소의 한 돌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아버지장군님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매일 연석을 닦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려 그들의 마음을 읽어보느라 단 천원건설현합기업소의 한 돌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아버지장군님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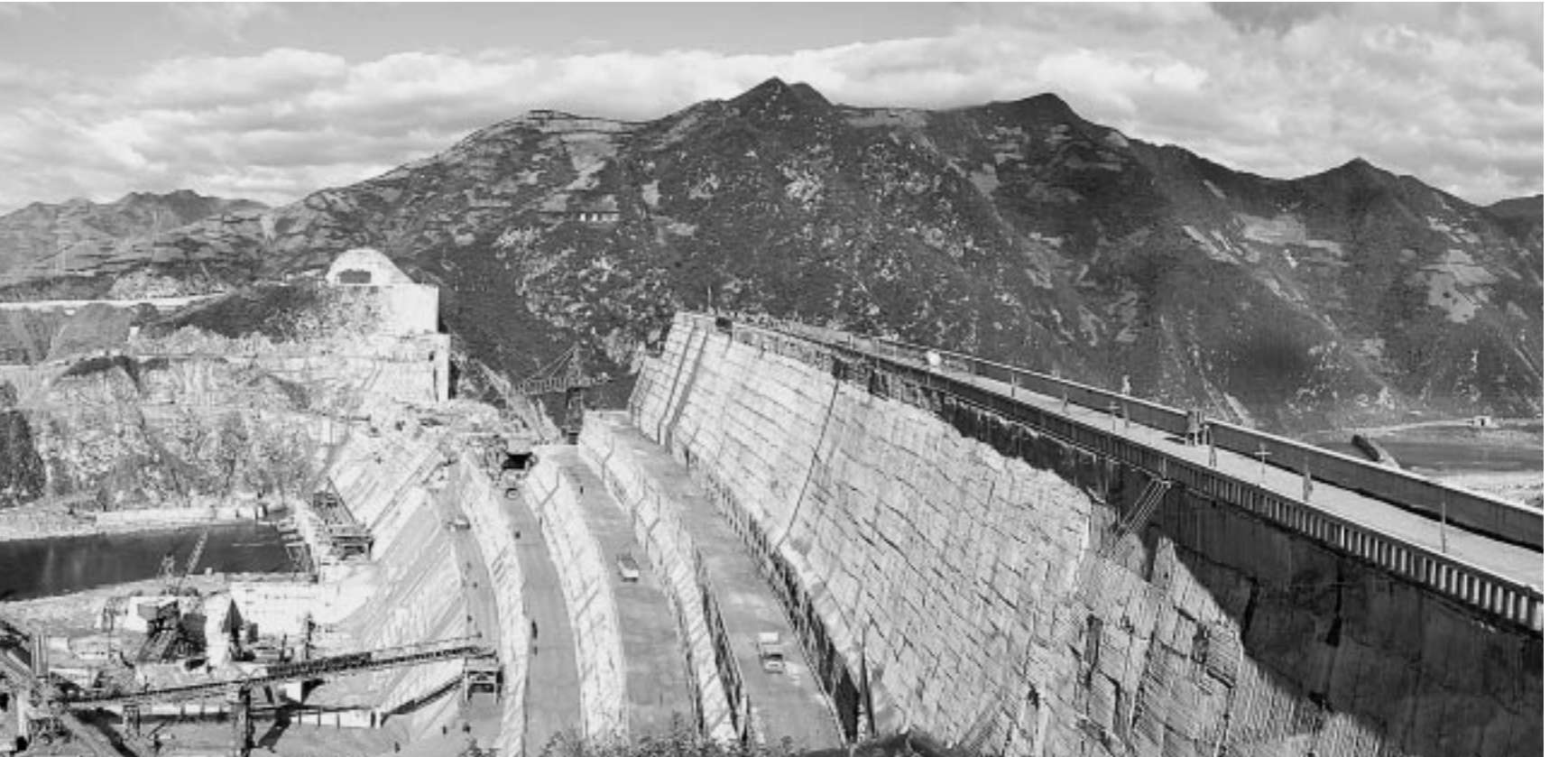
아마도 그렇게 매일 연석을 닦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려 그들의 마음을 읽어보느라 단 천원건설현합기업소의 한 돌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아버지장군님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매일 연석을 닦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려 그들의 마음을 읽어보느라 단 천원건설현합기업소의 한 돌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아버지장군님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매일 연석을 닦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려 그들의 마음을 읽어보느라 단 천원건설현합기업소의 한 돌



선군조국의 위용떨치며 웅장하게 일떠서는 희천 2호발전소 언제 본사기자 강 정 민 찍음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변

선군령장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 찬란하다

역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우리 혁명투사들의 가슴가슴은 지금 좁은 길의 김일성동지의 당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와 흥분으로 새창이 활짝 열리고 있다.

은 세상이 우리를고 인류의 다함없는 정성을 받고계시는 걸출한 위인을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것은 우리 조국과 민족만이 맞이하는 역사적인 대경사가 아니겠는가.

김정일시대에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찬란하고 통성변영하는 시대로 펼쳐나가고 하시며 내 조국의 앞날을 그처럼 기쁨에 넘쳐 축하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이 천만의 심장을 뭉클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아버지장군님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매일 연석을 닦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려 그들의 마음을 읽어보느라 단 천원건설현합기업소의 한 돌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아버지장군님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매일 연석을 닦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려 그들의 마음을 읽어보느라 단 천원건설현합기업소의 한 돌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아버지장군님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매일 연석을 닦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려 그들의 마음을 읽어보느라 단 천원건설현합기업소의 한 돌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아버지장군님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매일 연석을 닦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려 그들의 마음을 읽어보느라 단 천원건설현합기업소의 한 돌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아버지장군님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매일 연석을 닦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려 그들의 마음을 읽어보느라 단 천원건설현합기업소의 한 돌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아버지장군님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매일 연석을 닦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려 그들의 마음을 읽어보느라 단 천원건설현합기업소의 한 돌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아버지장군님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매일 연석을 닦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려 그들의 마음을 읽어보느라 단 천원건설현합기업소의 한 돌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감격적인 소식을 크나큰 기쁨과 흥분속에 받아안은 강선의 로동계급 — 천리마계관합기업소에서 — 본사기자 김 중 훈 찍음

선군혁명위업을 총대로 받들리

역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였다는 소식은 지금 전체 인민군중들의 가슴가슴을 끓이는 감격과 환희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앞으로 전군이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철저히 집행하며 최고사령관에게 충성을 다하리라고 굳게 믿는다.》

우리 인민군대가 오늘과 같이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보위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셨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혁명령도의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이 가장 투철한 사상과 신념의 장군, 그 어떤 강적도 일격에 짓통개버릴수 있는 현대적인 강군수단과 방어수단으로 자라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초강대국강행군으로 수천수만리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선군시대 군건설을 위한 사상과 방도들을 확히 밝혀주시고 전군에 오중중 7면대최고정취운동의 불길을 지펴올리시어 인민군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아버지장군님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매일 연석을 닦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려 그들의 마음을 읽어보느라 단 천원건설현합기업소의 한 돌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아버지장군님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매일 연석을 닦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려 그들의 마음을 읽어보느라 단 천원건설현합기업소의 한 돌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아버지장군님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매일 연석을 닦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려 그들의 마음을 읽어보느라 단 천원건설현합기업소의 한 돌

당조직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겠다

이번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는 은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정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였다.

이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평안북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혁명의 상징이시고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모든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더욱 충실히 받들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려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신념과 의리애 기초하에 김정일동지를 진실로 받들고 적극 옹호보위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변함없이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군대와 인민의 최상의 영광이며 크나큰 행복이다.

지난 기간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도안의 당조직들의 사업과 활동에서는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났으며 대개도 간직지건설을 비롯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과들이 수없이 이룩되었다. 도당위원회는 도안의 모든 당조직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진실로 받들고 옹호보위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선군조선의 운명이고 미래이며 우리 당과 혁명의 불패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순결한 망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하겠다.

도당위원회는 당조직들에서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주체사상교양, 선군사상교양 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도있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한편 당조직들에서 우리 당의 군중선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며 계급진지를 굳건히 다져나가도록 하겠다. 도당위원회는 당조직들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위고 대중의 정신력발동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것과 함께 주체의 당사방법을 적극 구현하며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로동계급적인 혁명,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도록 하겠다.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는것은 현 시 당조직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아버지장군님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매일 연석을 닦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려 그들의 마음을 읽어보느라 단 천원건설현합기업소의 한 돌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아버지장군님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매일 연석을 닦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려 그들의 마음을 읽어보느라 단 천원건설현합기업소의 한 돌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아버지장군님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매일 연석을 닦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려 그들의 마음을 읽어보느라 단 천원건설현합기업소의 한 돌

본사기자 김 중 훈 찍음

